

베트남의 동남아연구의 구성과 제도화 과정:

베트남 내부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최 호 립**

I. 서론

“주목할 만하게도, 1973년 하노이에 당시 베트남사회과학위원회라는 정부연구기관 안에 한 동남아연구과가 설립되었다.”(Reid & Diokno 2003: 101)¹⁾

동남아 각국의 동남아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창립 시기를 설명한 긴 문단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notably)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정관사를 붙인 것에서 엿보이듯이, 이것이 본격적인 동남아연구 분야의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하였는지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듯하다. 서구 학자들은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the Institute

* 이 논문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문한국지원사업(HK)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8).

** 서강대 동아연구소 HK조교수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Hanoi, notably, a Department of Southeast Asian Studies was established in 1973, within the 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 then known as the Vietnam Social Sciences Committe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EAS)와 말레이시아 말라야국립대학교의 동남아학과(the Department of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Malaya) 등을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동남아연구·교육기관으로 꼽아왔다(Halib & Huxley 1996: 4; Reid 2004: 15).²⁾

사실상 동남아 지역에 관하여 참으로 오랫동안 내부인 보다 외부인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왔다. 한 역사가는 “이 지역이 오랫동안 여러 지역을 교차하는 세계의 교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꼬집었다(Abu-Lughod 1989: 296-97; Reid & Diokno 2003: 93에서 재인용). 유럽, 미국, 일본의 학자들이 동남아를 하나의 지역체계로 인식하고 지역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이후에 오랫동안, 심지어 동남아에서 동남아연구·교육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동남아인에 의한 동남아연구는 주목받지 못했다. 동남아 각국의 동남아연구의 태동과 발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도 희소할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 내에 비로소 동남아학자 스스로 동남아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평가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필리핀의 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아시아 각국 학자들에 의해 자국의 동남아연구에 관한 소개 및 시론적인 평가가 발표되었고(UP Asian Center et al. eds. 2003), 태국 학자에 의해 태국의 동남아연구에 관한 글이 출판되었다(Charnvit 2003). 필리핀 학자 죠크노는 앤써니 리드와 함께 동남아의 동남아연구에 관한 평가를 발표하였다(Reid & Diokno 2003). 그러나 이러한 글들은 모두 편저의 챕터로 출판된

2) 유사한 맥락에서 다음 인용문도 참고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ISEAS는 1971년에 설립되어, 동남아연구자들의 주요 미팅 포인트가 되어 왔고, 동남아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주도적인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보다 연구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76년 말레이시아는 말라야대학교에 이 지역 최초의 학제간 동남아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보다 3년 전에 하노이의 베트남사회과학원 산하에 한 동남아연구소(an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를 설치하였는데, 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좁은 범위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Chou and Houben 2006: 7).

것으로서 심층적인 연구논문이라고 볼 수 없다. 대개의 내용이 태동기를 지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동남아연구의 저발전 상태에 대한 개관 혹은 시론적인 평가에 머물고 있으며, 그 마저도 외부 학자들의 시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³⁾

그러나 베트남 학자들은 동남아를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닌 지리적 실체이자, 현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 간주하고 동남아연구를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베트남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가 하나의 학술적인 분과로 구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기본적인 질문은 동남아연구의 토착화에 관한 것이다. 이상국은 싱가포르가 동남아지역을 전공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져 왔으며, 동남아연구를 주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의 발전은 주로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이상국 2010: 101-102). 세계적 차원에서 동남아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도 토착화된 동남아연구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도 이와 연속선상에 있다.

이 연구는 주로 동남아연구기관 및 연구 활동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베트남 학자들의 평가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베트남의 동남아연구소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의 제도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관한다. 둘째, 베트남에서 동남

3) 최근에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이 각국의 동남아연구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동남아연구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평가(박승우 2009)에 이어, 중국, 미국, 일본의 동남아연구에 관한 논문이 생산되었다(박사명 2010; 송승원 2010; 유인선 2010). 동남아의 동남아연구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이상국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인문한국(HK)사업, “열린 동남아 지역체계”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생산된 것이다(신윤환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동남아연구가 정착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각국의 학계가 역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인식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연구에 대한 인식과 동남아연구의 토착화 과정에 대한 내부의 평가를 고찰한다.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외부 세계의 동남아연구와 동남아 내부의 동남아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 및 베트남 토착의 동남아연구의 기원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주목한다. 끝으로, 학제적 지역학으로서 동남아학을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의 동남아연구 분야의 구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1> 면담자 목록(2009년 7월)

면접 일자	이름	소속	직위 및 분야
7월 6일	Trần Đình Lâm (쩐 딩 림)	호찌민국립인문사회 과학대학 베트남-동남 아연구소 (CVSEAS)	소장, 경제학자
7월 6일	Thành Phần (타인 편)	CVSEAS	부소장, 민족학자, 참파연구
7월 6일	Hoàng Văn Việt (호양 반 비엣)	호찌민국립대학교 동 방학부	학부장, 동남아-한 국정치 비교
7월 6일	Nguyễn Văn Tiệp (응웬 반 띠엡)	호찌민국립대학교 인 류학과	인류학과장, 응용인 류학연구소 소장
7월 7일	Phan Thị Hồng Xuân (판 티 홍 xuân)	호찌민시개방대학교 (Open University) 동남 아학과	부학과장, 인류학박 사, 말레이시아-인 도-중국 이주자 연구
7월 10일	Nguyễn Văn Chính (응웬 반 찌)	하노이국립대학교 아 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인류학자
7월 10일	Ngô Văn Doanh (응오 반 조아인)	베트남사회과학원 동 남아연구소	[동남아연구] 편집장
7월 10일	Nguyễn Duy Dũng (응웬 두이 중)	베트남사회과학원 동 남아연구소	부소장, ASEAN-일 본연구실장
7월 11일	Phạm Đức Dương, (팜 득 즈엉)	동남아연구소 창립자	초대 소장
7월 14일	Phan Huy Lê (판 후이 레)	하노이국립대학 역사 학과 명예교수	베트남역사학회장

이를 위해 필자는 현지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주요 연구자들과

면담하고 연구문헌, 팸플릿 등 각종 문서와 주요 저널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주로 베트남 동남아연구의 역사적 발전과정, 동남아관련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교육프로그램, 동남아연구 분야의 주요 학술지와 저서 등의 출판물, 주요 연구자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호찌민시와 하노이에서 모두 10명의 전, 현직 교수들이 심층면담에 응해주었다. 이 중에 특히 즈엉(Phạm Đức Dương), 쩌(Nguyễn Văn Chính), 조아인(Ngô Văn Doanh), 흥 쑤언(Phan Thị Hồng Xuân) 교수 등은 베트남 동남아연구의 역사 및 현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외에 호찌민국립대학교의 2명의 한국어과 강사, 개방대학교 동남아학과 대학원 과정의 연구생들과 대화하고, 하노이 사회과학원 산하 동남아연구소의 연구원, 도서관 사서 등을 만나 관련 자료를 구하였다.

II. 동남아연구소의 창립과 동남아연구의 제도화 과정

1972년, ‘항미구국전쟁’에서 승전을 눈앞에 둔 시점에 동남아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제안서가 베트남 정부에 제출되었다. 당시 베트남 사회과학위원회(Ủy ba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의 위원장 응웬 카인 또안(Nguyễn Khánh Toàn) 교수를 중심으로 역사학자 판 자 벤(Phan Gia Bền), 팜 응웬 룡(Phạm Nguyên Long), 당 빅 하(Đặng Bích Hà), 고고학자 까오 쑤언 포(Cao Xuân Phó), 문학의 까오 후이 덩(Cao Huy Đình), 응웬 떤 닥(Nguyễn Tấn Đắc)과 언어학의 팜 득 즈엉(Phạm Đức Dương) 교수 등이 창립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 사회과학위원회 산하 문학연구원, 고고학연구원 등 주요 국영연구기관의 간부들이었다.

1973년 “동남아반(Ban Đông Nam Á, 동남아연구과)” 창립 당시, 응웬 카인 또한 교수의 기초연설에는 베트남 동남아연구의 기본 방향과 시각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베트남의 지역인식에는 동아시아(Đông Á)를 중국, 일본, 조선(한반도)을 포함하는 북아시아(Bắc Á)와, 베트남,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남아시아(Nam Á)의 두 지역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동남아지역 인식과 연구의 포괄적인 범위로 간주하였다. 동남아 문화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인종적으로는 다양하고 언어적으로 남아시아 계통에 속한다고 정의하였다. 동남아 연구의 범위는 지역적으로 동남아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 대륙을 포괄해야 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연구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을 “동양”(đông dương)의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Nguyễn Khánh Toàn 1973: 3, 8-9).

그의 연설문에는 동남아연구의 학술적인 필요성과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교리와 개념을 원용한 정치적 논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선사시대부터 문명이 형성된 동남아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자본주의 태동기부터 유럽 식민주의의 주요 관심지역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는 제국간의 모순, 각 민족과 식민주의 간 모순, 사회주의 및 민족 독립운동 세력과 신식민주의, 봉건세력 및 매관자본 사이의 모순 등 세계의 주요 모순으로 점철된 지역이다. 동남아연구는 혁명을 위한 정치적 임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당면 목표는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를 타도하는 것이다. 장기적 목적은 동남아를 평화와 우의의 지역으로 만들어 각 민족의 자유독립, 번영과 행복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동남아 지역을 안정된 평화지역으로 구축하여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동남아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Nguyễn Khánh Toàn 1973: 7-8)

연구자체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수사를 앞세우는 이러한 태도는 베트남의 대부분 국영 연구기관의 운영방침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기관이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부의 이념적인 전략에 맞추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을 역사적으로 미화하고, 억압받았던 피지배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철학이 표현되고 있다. 벵농사, 주상가옥(柱上家屋), 동고(銅鼓) 등 동남아문화 공통의 뿌리를 바탕으로 여러 종족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았으며,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와 같은 큰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Nguyễn Khánh Toàn 1973: 8). 그리고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각 민족이 서로 협력하고 정서적인 단결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각 국가의 동남아 연구자들이 평화, 독립, 번영을 위해 역량을 집합시키고 단결해야 한다. 오늘날 베트남과 동남아의 각 민족이 독립, 자유, 평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 장애가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Nguyễn Khánh Toàn 1973: 13-14)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를 토착화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들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는 이렇게 시작하여 당-국가가 관리하는 학술기관의 목표와 의제에 따라 점차 확장되고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⁴⁾

4) 일반적으로 말해 탈냉전 시기 동남아 각국의 동남아연구 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베트남과 유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부문에서 동남아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왔고 국영기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부분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이 이 지역 자체에 대한 확고한 지식의 획득이 매우 긴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동남아의 사회, 정치 경제 및 기술적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인터넷의 발달 등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일상적으로 역내와 역외와의 소통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전의 정치적, 경제적 장벽들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제·문화 네트워크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사회, 정치, 경제적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세계

1984년에는 동남아반을 확대 개편하여 “동남아연구소”(Viện Đông Nam Á)가 만들어진다. 10년간의 준비를 거쳐 1984년 4월 10일, 베트남사회과학위원회 위원장은 동남아연구소를 창립하는 312호 결정(số 312-KHXH/QĐ)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면 동남아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동남아 각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 관한 과학연구를 통해 당과 국가의 이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 발전전략과 대내외 발전전략사업에 봉사하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연구소의 기본 직능은 “동남아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에 봉사하고, 베트남사회과학위원회를 지원하여 전국 각 단위의 동남아에 관한 연구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규정되었다.

초대 연구소장인 팜 득 즈영 교수는 이러한 임무를 위해 동남아연구소는 1973-1990년 기간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개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중화문명 및 인도문명과 구별되는 문명으로서 동남아의 고전문명, 토착문명에 관한 연구. 각국의 민족 구성에 따라 자연의 정복과 사회적 투쟁의 역사에서 형성되어 온 고유한 문화의 본령을 연구. 둘째, 각 민족의 형성사와 전통문화 출현의 역사, 즉 인도와 중화문화뿐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서로 다른 문화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출현하고 변화되어 온 역사에 관한 연구. 셋째, 서구 식민주의의 침략사와 식민지배 및 각 민족의 해방운동사. 식민화 과정과 탈식민화 과정에서의 경제, 사회, 전통문화의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넷째, 동남아 현대 사회의 여러 경로 및 동남아 각국과 세계 공동체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다섯째, 베트남과 동남아 각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Phạm Đức Dương 1990: 12).

즈영 교수는 1990년 동남아연구 창간호를 통해 이후 베트남의 동

적, 지역적 차원의 발전으로 인해 이 지역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증폭되기 시작하였다(Chou and Houben 2006: 2-3).

남아학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요 기본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첫째는 동남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하여 발전시키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으로부터 현대까지 역사·문화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와 베트남과 동남아 각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동남아 평화를 구축하고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민족의 자부심과 서로의 단결과 우애의 정신에 기여하도록 연구 사업을 확충해야 하며, 동남아연구의 성취를 통해 공산당과 사회주의정부의 국가발전전략에 기여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한 전략지역으로서 동남아에 대한 대외정책 수립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둘째로 동남아학은 여러 학문분야의 기초적 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이슈와 문제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동남아연구가 지역적 차원뿐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도 이론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적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동남아 지역과 베트남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강조하였다. 즉, 동남아와의 관련성 속에서 베트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베트남과의 관련성 속에서 동남아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Phạm Đức Dương 1990: 6-7).

이상의 목적에 따라 동남아연구소는 1990년대 들어 한층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자료와 논저를 출판해 왔다. 고고학, 인종학, 민족학, 언어학, 문학, 지리, 경제 등의 분야에서 동남아 각국과 여러 민족에 대한 연구서를 출판하고 일부 동남아 언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출판하였다. 아울러 국내 독자를 위해 동남아 각국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를 소개하는 교양서 출판을 지속하였다. 부박사(*phó tiến sĩ*)와 박사논문을 포함, 각 분야의 동남아 관련 학술연구논문을 출판하고, 연구편년사, 도서목록 등의 자료집을 편찬하고 출판정보

를 추적해왔다(Nguyễn Duy Dũng, Phạm Đức Dương 교수 인터뷰).

동남아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 분야의 독립과 제도화의 결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 9월 25일 문화정보체육관광부의 974호 허가(số 974 BC-GPXB do Bộ Văn hóa-Thông tin-Thể thao và Du lịch)에 따라 [동남아연구](*Nghiên cứu Đông Nam Á*)가 창간되었다는 것이다. 창간호가 실제 1991년 2월에 출판된 이후 이것은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출판되는 유일한 동남아 연구 저널이 되었다. 동시에 [동남아연구]는 베트남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직속 출판기관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것은 동남아에 관한 각 분야의 과학연구 프로그램과 연구 결과를 홍보하고, 각호의 잡지를 출판하고, 동남아에 관한 정보와 지식과 함께 연구 활동에서 과학적 가치를 발현하는 일과 관련된 일을 알리는 직능과 임무를 가진다고 규정되었다(Phạm Đức Dương 1990: 13-14; Ngô Văn Doanh 교수 인터뷰).

2002년 1월 필리핀 케손(Quezon)시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동남아 연구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당시 동남아연구소장 팜 득 타인(Phạm Đức Thanh)과 함께 베트남 대표로 참석한 당시의 하노이국립대학교 역사학과장 응웬 쩡 응옥(Nguyễn Quang Ngọc)은 1980년대 중반 개혁 정책의 영향으로 베트남학계의 지향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즉, 베트남에서 이념적, 국가적 개혁과정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심화시키고 한층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한편, 서로 다른 전문분야들 간의 협력과 교류가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사회과학계는 상호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과학기술환경부와 과학이론중앙위원회라는 우산 아래 소속된 연구소들로부터 요구와 지원이 늘어나게 되었다(Nguyen Quang Ngọc 2003: 105).

이러한 배경에서 동남아연구소는 1990년대 초부터 아세안

(ASEAN)에 대한 연구를 위임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남아연구소는 국내의 지역연구 역량을 집결하는 한편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 왔다. 그리고 동남아연구소와 관련 국영연구기관의 간부들과 학자들이 다양한 학술대회를 조직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외국의 저명 학자들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초반 동남아연구소가 가장 역점을 둔 연구과제는 인도차이나 및 ASEAN 각국에 관한 기초연구, 동남아 종교에 관한 비교연구, 베트남과 동남아의 타이족 연구, 베트남과 동남아의 참파 문화에 관한 연구, 동남아 사람들의 환경과 적응에 관한 연구 등이었다(Phạm Đức Dương 1990: 12-13).

1990년 이후 국제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특히 1995년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하면서,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 분야 최초의 영문 학술저널인 [*Southeast Asian Studies*]가 창간되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베트남어 저널과 영어 저널에 외국의 동남아연구를 소개하는 논문이나 외국 학자들의 논문이 번역되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동남아연구기관과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왔다. 베트남 학계는 특히 도이머이 정책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개방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연구에 관심을 가진 세계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고 학술교류도 촉진시켜 왔다(Trần Đình Lâm 교수 인터뷰). 아울러 세계적으로 베트남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 학자들은 베트남연구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남아연구의 주요 요소이며, 이 분야의 세계적인 교류의 확대 또한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의 성장과정의 한 면모라는 점을 강조한다(Hoàng Văn Việt 교수 인터뷰). 실제 베트남의 동남아연구가 활성화된 것에는 베트남연구 분야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⁵⁾

<표 2> 베트남의 주요 동남아 연구기관

기관 명칭(2009년 현재)	설립	특징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동남아 연구소	1973	[동남아연구](<i>Nghiên cứu Đông Nam Á</i> , 1990년 창간, 월간) 및 영문 <i>Southeast Asian Studies</i> (1995년 창간, 연간) 발간
베트남동남아학회(SEARAV, <i>Hội Nghiên cứu Đông Nam Á Việt Nam</i>)	1996	베트남과학기술중앙협회(VUSTA) 등록 단체, 회장: 팜 득 즈영 교수
호찌민시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 베트남-동남아연구센터(CVSEAS)	1993	정부 교육훈련부령에 의해 설립 소장: 쩌 당 림(Trần Đình Lâm)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1985	정부 교육훈련부령에 의해 설립 설립자: 함 즈영(Ham Duong) 부소장: 응웬 반 쩌(인류학)
동남아연구센터(Center for Southeast Asian Research)	1995	외교부 국제관계연구소(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 산하 연구소
동남아선사연구센터 (CESEAP, <i>Trung tâm Tiền sử Đông Nam Á</i>)	1999	하노이에서 Palaeo-Anthropology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조직(NGO) 설립자: 응웬 비엣(Nguyễn Việt, 고고학)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 동남아-호주학과 (Dept of Southeast Asian & Australian Studies)	1997	학과장: 마이 응옥 쩌(Mai Ngọc Chử, 언어학), 부학과장: 응웬 뚜엥 라이(Nguyen Tuong Lai, 타이연구)
호찌민시 홍방(Hong Bang)대학교 동남아학과	2001	학과장: 응웬 꾸옥 록(Nguyễn Quốc Lộc, 민족학)
호찌민시 개방대학교 (Open University) 동남아학과	1991	Acting Dean: 판 티 홍 쑤언(Phan Thị Hồng Xuân)
동북아시아연구소(VINAS), VASS	1998	동남아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소장: 응오 쑤언 빙(Ngô Xuân Bình)

5) 탈냉전 이후 베트남연구 분야의 발전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1998년 7월 15-17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베트남학에 관한 첫 번째 국제학술회의였다. 역사, 전통과 현대사회, 문화 및 문화교류, 경제와 사회, 농촌과 농업, 여성-가족 및 인구, 도시와 환경, 언어학과 베트남어자료 등 다양한 분과가 개최된 이 학술회의에 세계 26개국에서 300여 명의 학자와 400명의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도이머이 이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회의였다. 2000년 9월에 하노이에서 제2회 베트남학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외국학자 100명과 베트남 학자 200여 명이 참가하였다(Nguyen Quang Ngoc 2002: 107-108). 이후 2년 마다 베트남학에 관한 세계적 규모의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학회나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설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동남아연구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설립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관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에 설립되었다. 동남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국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국제적 환경 변화와 국내의 경제-정치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베트남에서도 동남아연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한 기반과 연구 인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동남아연구를 전공한 학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주도 하에 많은 연구기관이 급조되기도 했다(Nguyễn Văn Chính 교수 인터뷰). 이러한 연구기관의 설립자들과 소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학자라기보다는 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사업가로 보이기도 하였다. 찌(Chính) 교수는 “베트남의 동남아연구기관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연구한다”고 비꼬았다. 베트남의 많은 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순수한 연구과제보다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비즈니스에 많이 동원되고 있다.

베트남의 동남아연구 조직 중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1996년에 설립된 베트남동남아학회(SEARAV)이다. 이것은 동남아에 관한 과학연구협의회 창립운동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6년 8월 20일 정부수상실의 563호 결정(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563/TTg)으로 결성되었다(SEARAV 2006). 2006년 현재 산하에 20개 연구소, 30개 센터, 2개의 과학연구협회, 2개의 클럽, 3개의 기업 등 57개 단체가 등록하고 2,5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현재의 회장은 팜 득 즈엉 교수이다. 정관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공식적인 비정부조직(NGO)의 분류방식에 따른 범주들 중 하나인 “사회전문가조직”(a social professional organization)으로 규정되어 있다(최호립 2008; Norlund 2007). 이것은 민간 연구·교류단체를 지향하

지만 당과 국가의 후원으로 조직되었고, 다양한 사회적, 국제적 활동과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등록된 산하기관과 그간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학술연구나 연구를 통한 교류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역할이 많이 들어 있다. 정관에도 학술적인 미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회원 자격에는 동남아연구나 교육과 관련된 조건은 전무하며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도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수행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SEARAV는 연구보다 사회조직의 결성 자체를 중요시하고 연고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개인 및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베트남 조직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베트남의 동남아연구에서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외가 있다면 호찌민시 개방대학교 동남아학과일 것이다. 이 학과는 마치 호찌민시의 동남아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듯한 분위기였다(Phan Thị Hồng Xuân 교수 인터뷰). 베트남 연구에 국한해도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관이 드물다. 한편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를 위한 베트남어 연수과정과 베트남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베트남학 과정이 있는 센터가 많아졌다. 대부분이 <표 2>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이지만, 동남아연구기관과 협력한다. 현재까지 외국인을 위해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센터의 교사들에게만 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노이국립대학교의 베트남어과는 1960년대에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베트남학 관련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에 베트남어과는 외국 학부생에게 베트남어와 베트남문화를 가르치는 과정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전국의 많은 대학들에서 외국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하노이사범대학교, 하노이외국어대학교, 다낭대학교, 호찌민시국립대학교 등에서 많은 외국학생들을 유치해왔다. 호찌민시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의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학

베트남어과는 베트남·동남아연구소(CVSEAS)로 개편되었다. 최근에 CVSEAS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Ⅲ. 동남아연구에 대한 인식과 토착화를 위한 노력

1. 외부의 동남아연구에 관한 베트남의 인식과 평가

오랫동안 동남아에 관한 인식과 지식은 외부인의 목소리에 의존해 왔다. 베트남의 동남아연구 창시자들 또한 이러한 현실과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소련, 미국, 그리고 중국 및 일본의 동남아연구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동남아연구의 토착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들은 베트남의 동남아연구 형성의 전사(前史)에서 특히, 프랑스식민시대의 역할과 영향에 주목하였다. 베트남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1898년에 프랑스 원동학원(the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FEO, *Viễn Đông bác cổ Pháp*)이 사이공에 설립된 이후 1954년까지 EFEO가 인도차이나에서 동남아연구의 태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Phạm Đức Dương 1998a: 19-22).⁶⁾ EFEO는 당시 여러 차례

6) 베트남 동남아연구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 즈엉 교수의 저술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베트남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특히 그의 저서 [동남아학의 25년 간의 접근(Phạm Đức Dương 1998a)]은 베트남의 동남아연구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학자들은 즈엉 교수가 지난 40년 간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1973년 동남아반 설립 이후 1994년까지 21년 간 동남아연구소장으로 재임하면서 동남아연구의 개척과 확산을 주도하였고, 특히 언어와 문화연구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더구나 [동남아연구] 창간부터 오랫동안 편집장을 맡았다. 그는 자신이 “베트남에서의 동남아연구를 위한 25년간의 여정”(25 năm một chặng đường đến với Đông Nam Á học ở Việt Nam)이라고 이름붙인 연구를 통해 베트남 ‘동남아학’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단을 조직하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버마, 자바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지역을 넘어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연구하였다. 하노이의 학자들은 EFEO의 연구가 다양하고 깊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히 여러 비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지역 고유의 문명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식민시대 EFEO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구를 확대해왔다는 것은 서구 학자들에게도 주지의 사실이다. EFEO의 연구가 이 지역에 관한 근대적 연구의 시초였다. 네덜란드 학자들이 식민 지배의 정치, 경제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던 자바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으나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연구는 달랐다. 프랑스인들에게 베트남문화와 역사는 항상 낮설고 생경하였다. 프랑스인들은 베트남문화를 중국 문화의 아류 정도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앙코르의 크메르 문명이나 중부베트남의 참파 유물이 프랑스 학계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관심을 끌었고, 프랑스의 오리엔트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1898년에 사이공에 설립되었다가 이후 하노이로 본부를 옮긴 EFEO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1907년에 착수한 앙코르의 복원과 분석을 위한 연구였다(Reid & Diokno 2003: 97-98).

식민시대 당시 베트남은 동남아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간주되었으나, 이 지역에 관한 연구의 제도화는 베트남에서 먼저 시작되었다.⁷⁾ 하나의 지역으로서 동남아의 특징이 응집되어 있는 가장 핵

7) 베트남에서 가장 명백하게 “동남아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선구적인 민족주의자는 응웬 반 후옌(Nguyễn Văn Huyền)이었다. 그는 1920-30년대 파리의 동양어대학(the Ecole des Langues Orientales)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쳤고, 네덜란드의 라이덴과 영국의 런던에서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네덜란드어와 영어에 능통하였고, 동남아 지역을 하나의 민족학적 총체(an ethnographic whole)로서 재개념화 하였다. 이 지역의 주거 건축의 공통적인 패턴에 관한 그의 개척자적인 연구는 아마도 인종적으로 동남아 출신 학자로서 그 타이틀에 “동남아시아”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연구일

심적이고 자연스러운 위치가 말라카해협 주변의 교역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령 말라야에서는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하였고 195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체계적인 동남아연구가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시대에 이 지역에 관한 연구는 랑군과 하노이가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Reid & Diokno 2003: 97). 이것은 국가 형성 시기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베트남, 버마 등 대륙부 동남아는 봉건왕조시대부터 제도적인 학문의 틀이 마련되어 있어서, 도서부 동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대교육제도가 전통적 제도의 토양 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학자들은 프랑스의 EFEO뿐 아니라 네덜란드, 영국 등 서구학자들이 고고학, 언어학, 민족학, 역사,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서구학자들의 한계가 뚜렷하였다고 비판한다. 첫째, 유럽인의 감각과 인식을 중심으로 동남아를 판단하는 점에 대해 비판한다. 모든 민족은 고유한 감각과 인식을 지니고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형성해 왔다는 문화상대주의를 강조한다. 둘째, 유럽의 오리엔트연구는 동남아 외부의 거대문명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점차 내부의 작은 문명에 관한 연구로 이동하여 편견이 많다고 비판한다. 즉, 유럽 학자들은 인도나 중국을 연구하다가 동남아를 연구하여, 중화화나 인도화의 관점에서 동남아가 인도와 중국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측면만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 서구학자들은 식민지 피지배민족을 야만적이거나 낙후된 것으로 규정하고 동남아 사람을 개화나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Phạm Đức Dương 1990: 4-5; 1998a: 27-28). 그러나 서구중심주의(Western-centrism),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등에 대한 비판 자체가 서구 학계에서 널리 제기되어 왔음을 무시할 수 없다.⁸⁾

⁸⁾ 것이다(Reid & Diokno 2003: 96).

베트남의 동남아연구 학자들은 탈식민지 과정에서 특히 1940-50년대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학으로부터도 크게 영향을 받아왔음을 강조한다. 베트남 학자들은 구 소련연방에서 인도네시아, 아랍, 인도, 라오스 등 국가 연구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많았고, 특히 1954년 이후 소련 사회과학계의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하였다. 동남아연구의 개척자들 중 다수가 소련 유학파들이다.⁹⁾

베트남에서 오리엔트연구를 “국가학”(đất nước học)과 “지역학”(khu vực học)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소련의 국가별연구는 연구나 교육 모두에서 일찍 발전하기 시작하여 베트남의 지역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베트남학자들은 소련의 동남아연구는 1950-60년대 냉전의 환경에서 각국의 사회주의 성장과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며, 민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피지배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보는 관점이 뚜렷하다고 평가하였다(Phạm Đức Dương 1998a: 30-32). 그러나 소련의 연구는 동남아 현지에서 직접 연구한 결과보다, 서구의 연구 자료를 활용한 것이 많은 약점이 있다. 서유럽 학자들이 주로

8) 많은 학자들이 동남아와 관련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제로 서구에서 만들어진 개념들이 지배적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동남아 출신 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훈련된 학자들이며, 국내에서 교육받은 학자들도 사실상 서구에서 훈련된 스승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따라서 지역토착의 상황이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연구 모두에서 서구의 개념과 이론들이 영속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외국학자나 동남아학자 모두 사회과학의 ‘토착화된’ 접근(‘indigenized’ approach)과 ‘자주적’ 역사(‘autonomous’ history)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 당대의 학계는 어디에서나 동남아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서 자민족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Halib & Huxley 1996: 6).

9) 예를 들면, Nguyễn Khánh Toàn은 공산당 중앙조직인 사회과학위원회의 위원이었는데, “핵심 공산주의자”(a big communist)라고 불렸다. 즈엉과 조아인(현 동남아연구 편집장) 교수는 소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일본과 유럽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 동남아연구 학자 대부분은 베트남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 교수는 네덜란드에서 인류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에서 장기간 연구하였는데, “구세대”의 정치적, 이념적 오리엔테이션에 관해 비판하였다(Nguyễn Văn Chính 2007 참조; 저자와의 인터뷰).

동남아의 문화와 역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러시아 학자들은 현대정치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저자와의 인터뷰).

베트남의 선구자들은 미국의 동남아연구에 대해서도 평가해 왔다. 일례로 즈영은 에머슨(Emmerson 1984), 스콧(Scott 1992), 허치먼(Hirschman 1992) 등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냉전시기 미국의 동남아연구는 소련과 유사하게 정치학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많은 학자가 대기업의 기금을 활용하거나 정부기관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이 시기 유럽 학자들이 인류학, 지리학, 언어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발표하고, 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종사했던 점과 대조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Phạm Đức Dương 1998a: 33-37). 미국의 동남아연구가 유럽에 비해 늦게 태동했지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동남아 학자들이 미국의 연구기관과 관계를 활성화시켜 왔다. 베트남 또한 1990년대 중반 정식 수교를 앞두고 미국 학계와의 협력에 관심이 커졌다.

한편, 베트남 학자들은 중국은 오랜 옛날부터 동남아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중국의 동남아연구도 그 역사가 오래 되었으나, 주로 중화주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Đôi Khải Lai 1992). 중국인들은 화남 이남 지방의 문화적 영향이 동남아에 강하게 미쳤으며, 선사시대 중국 남부와 현재의 동남아문화의 뿌리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Phạm Đức Dương 1993). 베트남도 이미 오랫동안 중화문화(*Văn hóa Trung Hoa*)의 모형을 받아들였다. 한자를 받아들였고, 많은 사료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동남아연구소도 창립 초기에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동남아에 관한 베트남의 고서적]을 편찬한 바가 있다(Nguyễn Thị Thi sru tâm ed. 1977). 이것은 진랍(Chân Lạp), 시암(Xiêm), 라오(Lào), 그리고 참파-미얀마-자바(Chiêm Thành, Myanma, Chà Và) 등 네 권의 총서로 발간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자료

를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하기도 하였다(Phan Huy Lê 교수 인터뷰). 일본의 경우도 한자문화권의 영향으로 오래 전부터 아시아지역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18세기 초 도쿠가와 시대부터 이미 중국의 고서적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교통과 교류에 관한 5권의 연구서가 출판되는 등 이 지역에 관한 연구들이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고 평가하였다(Nguyễn Văn Chính 1995).

이상, 베트남의 동남아연구자들은 외부인에 의한 동남아연구 역사가 베트남의 동남아연구에 주는 메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세계 각국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역학으로서 동남아연구를 구축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지난 1세기 여 동안 서구학계의 노력이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기여했다. 토착 연구자들은 이러한 업적을 계승하되, 서구학자와 다른 토착의 관점을 제시하고 외부의 시각과 내부의 시각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서구 학자들은 동남아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지역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동남아는 아주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하나의 문화역사적 지역이며, 현대 동남아는 하나의 전략지역이라는 두 측면에서 동남아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내용을 일관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각 분과학문에서 비롯된 접근방법과 각 분야별 연구결과를 서로 활용하는 학제적인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채택해야 한다(Phạm Đức Dương 1998a: 49-55; 저자와 인터뷰).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의 초기 동남아연구자들은 서구와 중국, 일본의 동남아연구를 소개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했다(Đới Khải Lai 1992; Phạm Đức Dương 1978; 1996 등). 아울러, 동남아 내부의 시각에서 본 동남아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2. 동남아 내부의 동남아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

일반적으로 외부 학자들은 동남아인 스스로에 의한 연구는 가장 이른 경우가 동남아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고, 대부분은 1980-9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Bahrin 1981: 100-101; Halib & Huxley 1996: 1-4). 그러나 동남아인 스스로의 이 지역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각국에서 동남아 연구가 제도화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이 베트남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서구학문의 영향 이전에 존재하였던 동남아 내부의 종족적, 문화적 기원과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구의 영향 이전에 이미 동남아 내부에서 ”오리엔트 연구“에 해당하는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서구의 과학은 18-19세기, 더 빠르게는 16-17세기부터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본 동양이라는 시각,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적 시각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Nguyễn Khánh Toàn 1973: 11)

즈영 교수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지배민족의 독립운동이 활성화되고 독립국가의 번영에 관심이 증폭되면서, 동남아 인민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등의 근본적인 물음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물음이 동남아 내부에서 동남아 학이 갈수록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배경이라고 주장하였다(Pham Đức Dương 1990: 5). 특히 동남아 고유의 고대문명과 문화교류에 대한 인식은 역사학과 고고학 연구에 많이 반영되어 왔으며, 다른 문명권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고대국가 문명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탈냉전 시대에는 각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동남아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ASEAN, 경제협력,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는 지난 10년 간 급증하였다. 베트남 학자들이 분명한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세안의 출현이 이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Nguyễn Duy Dũng, Ngô Văn Doanh 교수 인터뷰).

베트남 학자들은 동남아 각국의 연구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각국 학자들과의 교류도 심화시켜 왔다. 1991년 [동남아연구] 제2호에 처음으로 동남아 각국의 동남아연구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Nguyễn Tấn Đắc 1991; Trần Khánh 1991). 베트남 학자의 평가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는 예외적으로 대륙부와 도서부를 통틀어 각 분야에서 각국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연구 인력이 풍부하고 동남아 각국뿐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미국의 학자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학술회의가 매년 개최되며,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세계의 우수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Trần Khánh 1991; Phạm Đức Dương 1998a: 68-72). 웅웁 떤 닙의 논문은 타마삿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센터에서 출판된 책(Chamvit et al. 1991)을 인용하면서 태국의 동남아연구를 비롯한 각 국가별 연구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Nguyễn Tấn Đắc 1991).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동남아교육에도 주목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사회과학원은 동남아 각국의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왔다. 특히 싱가포르의 ISEAS가 이 지역에서 가장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최근에는 베트남 학자들과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 베트남의 동남아연구 토착화의 기원에 대한 인식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기관을 제도화한 학자들은 베트남에 이미 동남아연구의 역량이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으며 오래 전부터 동남아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강조하였다. 1973년 응웬 카인 또한은 “정리되지 않은 채 분산되어 있는 연구결과와 역량을 ‘동남아학’이라는 확실한 기초 위에 집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Nguyễn Khánh Toàn 1973: 9).

베트남 학자들은 베트남의 동남아연구가 식민주의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식민시기에 태동된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 전부터 자생적인 뿌리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토착적인 기원을 주장한다. 이에 관해 여러 지역의 역사적 사건, 지리, 일기, 잡기 등을 기록한 베트남의 고서적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동남아문화와 역사를 다루어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응웬 레 티는 베트남의 동남아연구 역사가 13세기까지 앞당겨진다고 주장하였다(Nguyễn Lê Thi 1993). 동남아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서적으로 [대월사기(大越史記)] (Lê Bản Hưu ed. 1272. *Đại Việt sử ký*)가 알려져 있으나, 이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안남지략(安南志略)](Lê Tác 1333. *An Nam chí lược*)이 동남아연구의 기원과 관련하여 현재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응웬 짜이가 편찬한 [여지지(輿地誌)](Nguyễn Trãi ed. 1438. *Dư địa chí*)에는 동남아 지리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책에서 [대월사기]의 기록을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다. 특히 당시의 베트남과 인근 동남아지역 국가 및 민족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설명하였다(Nguyễn Lê Thi 1993).

레(Lê, 黎, 1428~1788) 왕조의 말기에 와서 레 꾸 돈(Lê Quý Đôn)이 역사, 문화, 지리, 생물 등 여러 영역에 속하는 많은 저서들을 저술하였는데, 그 중에 특히 [무변잡록](撫邊雜錄, *Phủ biên tạp lục*),

[운대유어](雲臺類語, *Vân đài loại ngữ*) 등 두 권의 책에서 시대에 따라 베트남과 동남아 각지의 관계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19세기에 민 망(Minh Mạng)제가 <응웬조의 국사관>(Quốc sử quán Triều Nguyễn, 阮朝國史館)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흠정월사통감강목](欽定越史通鑑綱目越史通鑑綱目, *Khâm định Việt sử thông giám cương mục*), [대남식록정편](大南寔錄正編, *Đại nam thực lục Chính biên*) 등 두 권의 풍부한 자료를 편찬하였다. 특히 [대남식록정편]은 그 때까지 전혀 다루어지지 않던 동남아 각국의 정치, 군사, 문화에 대한 정보를 실었다. [대남열전정편](大南烈傳正編, *Đại nam liệt truyện chính biên*)은 루앙프라방(Vạn Tượng) 및 비엔티엔(Nam Chưông)의 라오스, 태국(Xiêm La), 캄보디아(Cao Miên) 등을 시대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 밖에도 응웬조 국사관이 펴낸 [국조처치만상사의록](國朝處置萬象事誼錄, *Quốc triều xử trí Vạn tượng sự nghi lục*) (Quốc Sử quán Triều Nguyễn ed.), 응오 까오 랑(Ngô Cao Lãng)의 [오만풍토기](五蠻風土記, *Ngũ man phong thổ ký*) 등이 동남아 각국에 대해 기술한 책으로 전해지고 있다(Nguyễn Lê Thi 1993: 61-68).

한편, 판 후이 쭈(Phan Huy Chú 1833)의 [해정지략](海程志略, *Hải trình chí lược*)은 1832-33년 기간 다낭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바타비아(Batavia, 현재의 자바)까지 이르는 공무여행을 한 경험을 기록하였는데, 인도네시아의 한 학자(Asvi Warman Adam 박사)가 그의 작품을 “바타비아에 관한 베트남인의 기록”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Xưa Nay* số 24, November 1996; Phạm Đức Dương 1998a: 79 재인용)

“베트남의 고서적은 베트남과 동남아 각국의 관계사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과 분야에 대

한 설명이 과편적이고 산발적이며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서적들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봉건시대 베트남과 동남아 각국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첫째, 고대부터 이 지역에 통상이 빈번하였다. 둘째, 서로의 관계가 각 민족의 문화교류에 기여하였고, 공통의 문화적 특성의 건설에 기여하였다. 셋째, 이 지역민들의 상호교류는 경쟁을 촉발하였고 각 민족의 애국심에 기여하여, 정치발전을 이루고 시기에 따라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다. 넷째, 이러한 과정에서 각 지역 인민들은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하여 평화적 관계의 전통을 만들어 나갔다.”(Nguyễn Lê Thi 1993: 77-78)

이러한 설명에도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교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베트남 학자들은 현대 동남아학 건설 과정에도 자생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그러한 노력에 대해 자성적 평가를 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고고학, 인종학(*nhân chủng học*, 인류학) 언어학, 민족학(*dân tộc học*), 사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동남아라는 범위에서 베트남과 각국에 관한 연구가 확장되어 왔으나, 동남아학이라는 분야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1973년 “동남아반”을 창립하면서 동남아연구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베트남 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열성적으로 동남아학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베트남의 동남아연구는 아직 저발전 상태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즈영 교수는 [동남아연구]의 창간을 맞아 베트남이 동남아 안에서 탄생하여 성장해 왔으며 이 지역 각 국가와 오랫동안 접촉하고 많은 관계를 맺어 왔으나, 아직까지 동남아학 분야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평하였다(Phạm Đức Dương 1990: 5-6).

IV. 학제적 지역학으로서 동남아연구의 전개와 한계

베트남의 선구자들은 동남아학 부흥을 위해 연구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 및 인도 문명과 구별되는 동남아 고유의 문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 둘째, 동남아 각국과 각 민족의 형성과 전통문화의 출현과정을 인도 및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의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연구, 셋째, 서구 식민주의의 동남아 침략, 민족해방운동의 과정, 그리고 동남아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의 영향에 관한 연구, 넷째, 현대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즉 세계화와 지역통합의 맥락에서 동남아 각국의 공업화 과정과 21세기 동남아 미래의 전망, 다섯째, 각 시기별 베트남-동남아 각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Phạm Đức Dương 1998a: 262-63).

특히 이들은 한결같이 학제적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수는 동남아반 창립 기초연설을 통해 동남아연구는 종합적인 방법(*phương pháp tổng hợp*)을 채용해야 하며, 역사, 문화, 지리, 언어, 경제 등 여러 분야의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고고학적 연구결과는 민족학, 역사학, 민간문학, 언어학 연구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Nguyễn Khánh Toàn 1973: 13). [동남아연구] 창간호에서는 “동남아학은 적합한 방법론 체계를 선택해야 하며, 특히 총체성의 관념이 중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계된 접근을 시도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Phạm Đức Dương 1990: 7, 13-14)면서, 학제적, 총체적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동남아연구] 자체가 다학문적, 학제적 접근방법(*phương pháp tiếp cận đa ngành và liên ngành*)에 기초한 지역학 학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¹⁰⁾

10) 응웬 팡 응옥은 ‘베트남학’(Vietnamology) 또한 본성적으로 다학문적 혹은 학제적이며, 베트남연구는 지역연구에 포함되는 포괄적, 학제적 과학(a generic,

이들은 기존의 서구학자들이 미처 발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동남아 각국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베트남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한다. 가령, 역사민속학자인 뚜찌(Từ Chi)교수와 언어학자이자 민족학자인 팜 득 즈엉은 베트남지리학회 의 회장인 레 바 타오(Lê Bá Thảo)를 비롯한 하노이사범대학의 일부 지리학자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지리학 분야에서 세계지리의 한 영역으로 동남아지리의 연구에 기여한 바를 긍정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국가별 인문지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의 동남아연구 주창자들은 지역연구가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혹은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를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각국의 동남아연구기관의 학자들은 실제 특정 학문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동남아지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특정분야 전공자가 특정분야의 근본적인 부분(disciplinary 'backbone')에 대한 훈련이 결핍되어 있는 다학문 분야의 학부생을 가르치는 데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Halib & Huxley 1996: 4-5). 베트남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유사하게 내재되어 왔다. 학제적 연구를 강조하면서도, 대개의 경우 각 분과학문에서 베트남연구 학자들을 동남아연구자로 변신시켜 연구 인력을 확충해 왔다. 가령, 베트남의 자연지리를 연구한 레 바 타오는 분명히 동남아지리 전공자가 아니지만, 동남아연구소에서 지리학분야의 참

interdisciplinary science included in Area Studies)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자들이 특정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특정 분야의 연구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베트남연구의 학제적 또는 포괄적 본성을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역사, 언어, 인구학, 민족학 등 관습적으로 핵심 분야로 간주되어 온 분야들의 연구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guyen Quang Ngoc 2003: 101-103, 108).

여를 주도하였다. 그는 경제지리, 고고지리 등 분야의 후학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점이 베트남의 동남아연구 역량의 면모를 추측하게 한다.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에서 제도화된 동남아연구는 사실 아직도 자국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사 영역의 연구를 위하여 민족학과 문화학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고학, 언어학, 생태학 등등의 학제적인 연구가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오래 전부터 민족학 분야가 아주 강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 중에서 특히 동남아의 쌀농사를 공통으로 하는 지역 촌락문화의 보편성에 대해 논한 연구(Nguyễn Từ Chi 1996)가 유명하다. 응웬 뚜 찌(Nguyễn Từ Chi)는 민족학의 참여를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특히 그는 현지 조사를 강조하는 학자여서, 역사문화연구에도 현지실사의 전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동남아연구소의 민족학 분야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동남아의 여러 민족들] (*Các dân tộc Đông Nam Á*, 1997)도 출판하였다.

민족학 분야에서 농업과 농촌문화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응웬 뚜 찌, 응웬 주이 티에우(Nguyễn Duy Thiệu), 부이 쑤언 덩(Bùi Xuân Đính), 응웬 꾸옥 흥(Nguyễn Quốc Hùng), 부 후이 쩡(Vũ Huy Quang) 등 민족학자들이 공동으로 [평야의 경관에 대한 이해]를 출판하였다(Nguyễn Từ Chi et al eds. 1983). 이 책에는 동남아 각지의 농촌생활이 해안, 섬, 델타지역, 분지, 산지, 고산지대 등에 따라 서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비교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기술된 베트남 사례는 실제의 조사에 기초한 것이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기존문헌을 활용한 단편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동남아지역을 연구한다고 자칭하는 민족학자들이 다수 있지만, 실제 이들의 연구업적 대부분은 베트남연구에 국한된다. [동남

아연구의 거의 매호에 민족학자들의 연구가 게재되어 왔지만, “홍하델타 전통 촌락의 구조”, “서부고원지대의 생활문화” 등 베트남연구에 해당하는 논문들이다.

베트남 소수민족의 민속연구도 동남아연구의 중요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다. 가령, 호몽(H'mong)에 관한 연구는, 유사한 소수민족이 중국, 미얀마, 태국 등에도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남아연구에 포함되며 동남아연구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hạm Đức Dương 1998a: 269-70).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주장이 억지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베트남의 소수민족연구가 동남아 각국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어 온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 소수민족에 관한 연구자가 동남아연구소의 활성화 이후 동남아연구자로 변모하여 활동하는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언어학자 팜 득 즈영은 라오스의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였는데, 그의 연구의 많은 부분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호몽의 언어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되었다(Phạm Đức Dương 1998b 참조). 베트남의 띠이-타이(Tây - Thái)족 연구는 태국과 라오스의 주류 종족 및 미얀마의 산(Shan)족 등 대륙부의 다양한 종족뿐 아니라 인도와 중국의 일부 소수민족과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비교연구로 분화되었다.

동남아연구소 설립 이후 1990년대 말까지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에 오래 거주하며 연구한 학자들과 동포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연구 기반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태국연구의 경우 즈영 쑤언 즈영(Dương Xuân Dương), 쩌 지에우 틴(Trình Diệu Thìn), 응웬 찌 통(Nguyễn Chí Thông), 마이 반 바오(Mai Văn Báo), 레 응옥 프엉(Lê Ngọc Phương) 등이 있고, 미얀마 연구에는 팜 킴 하오(Phạm Kim Hào) 교수가 참여하였고, 라오스 연구에는 오랫동안 라오스를 다니면서 연구한 다오 반 띠엔(Đào Văn Tiển)과 즈영 교수 등이 있다. 이들은 해당 언어에 능통하다. 그리고 소수민

족 출신 학자들이 민족학 분야에서 출신 종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동남아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가령 껌 쯡(Cầm Trọng), 레 씨 자오(Lê Sỹ Giáo), 호앙 르엉(Hoàng Lương), 비 쯡 리엔(Vi Trọng Liên), 르엉 벤(Luong Bèn) 등의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역사학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수민족에 관한 연구결과를 [동남아연구]에 게재해 왔다. 이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를 실제로 주도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문화학, 민족학, 언어학 분야의 연구자들이다.

그리고 한 반 떤(Hà Văn Tấn), 응오 테 풍(Ngô Thế Phong), 부 쯡 꾸이(Vũ Công Quý), 쩌 낭 쯡(Trinh Năng Chung) 등의 고고학자들이 도서지역의 문화, 농업발생의 모형 등에 관한 연구에 기여해 왔다. 무엇보다도 언어학이 동남아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가령, Phan Ngọc and Phạm Đức Dương 1983; Phạm Đức Dương 2007). 각 지역의 언어를 전공한 학자들이 국가별 연구실에서 언어 교육을 담당해 왔다. 가령, 크메르어는 판 응옥(Phan Ngọc), 응웬 씨 뚜언(Nguyễn Sỹ Tuấn), 라오스어와 태국어는 응웬 씨 통, 팜 득 즈엉, 쯡응 주이 호아(Trương Duy Hoà) 교수가 가르쳐왔다. 인도네시아어는 레 반 토(Lê Văn Thọ), 응웬 티 르엉(Nguyễn Thị Lương) 교수가 가르치고 각각의 교재를 개발해 왔다. 오랫동안 [동남아연구] 편집장을 맡았던 팜 응옥(Phan Ngọc) 교수와 현재의 편집장 조아인 교수가 주도하고 각국 언어전공자들이 참여하여 [동남아문화사전](Dictionary of Southeast Asian Cultures)을 발간하였다.

어문학분야도 지속적으로 동남아연구에 참여해왔다. 1973년 6월부터 1975년 4월까지 동남아반위원장(Trưởng Ban Đông Nam Á)이었던 까오 후이 덩(Cao Huy Đình) 교수가 이 분야의 참여를 주도하였다. 그는 인도에서 2년간 유학하며 인도문학연구를 하였다. 특히 비교문학분야는 태국, 라오스 등 대륙부뿐 아니라 필리핀,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문학작품에 대한 소개와 분석 작업도 수행하였다. 특히 네덜란드 식민시기를 비롯한 인도네시아문학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응웬 득 닝은 식민시대 네덜란드 및 서구의 문학과와의 접촉을 다루었다(Nguyễn Đức Ninh 1983). 캄보디아의 고대 문학, 므엥(Muong)족, 라오스 등의 민간문학 등에 관한 박사논문도 다수 출판되었다. 특히 동남아의 민간문학에 관한 연구서가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민간문화와 민속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태국과 라오스의 풍속 및 민간예술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토착 종족의 민간문화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베트남의 동남아연구에서 대륙부동남아에 비해 도서부 동남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국가별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특히 라오스와 캄보디아 연구가 선구적 역할을 해 왔다(Reid and Diokno 2003: 100). 1970년대부터 공산당이 베트남 민족의 승리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라는 두 형제 민족의 혁명과 동일한 전략적 의의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베트남혁명을 동남아 각국의 혁명과 관련시켜 이해할 필요를 강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서 및 해안지역에 관한 연구도 일부 축적되어 왔으며, 특히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해양을 통한 상업과 교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Phạm Đức Dương et al eds. 1996 참조). 이러한 연구에서 도서부동남아와의 교류사가 일부 언급되고 있다. 도서부에 관한 연구자가 희소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전공자는 매우 귀중한 인력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럼에도 베트남에서 도서부 동남아연구는 아직 정체되어 있으며, 일부 대학과 연구소에 석사과정 학생이 있다.

한편, 학제적 연구를 강조하는 시각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제 발표되는 논문은 여전히 개별 분과에 독립적으로 속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동남아연구에 포괄되는 연구 중에 여전히 베트남연

구에 해당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3>과 <표 4>는 최근 영문 및 베트남어 [동남아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경향적인 분포를 설명해주고 있다.

<표 3> [Southeast Asian Studies]계재 논문의 주제별 분포(2005~2008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베트남	- 해양문화 - 문화유산 - 도자기 교역 - 베트남의 가치 - 평등문제	- 농촌가구경제 - 베트남사 - 힌두-참파여신	- 카인호아의 이 아나(Y A Na) 신앙 - 20세기 교류사 - 통킹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 통일문제 - 포 나가(Po Nagar) 힌두 사원	13
베트남의 소수민족	- 중부고원지역 축제	- 므엥-타이 비교		- 남베트남의 중국인	3
해외 베트남인	- 태국의 베트남인 공동체				1
동남아 각국	- 라오스의 아카족	- 미얀마	- 시암 개혁왕조	- 슬라웨시	4
아세안 및 국제관계		- 태국, 라오스와의 박물관 교류	- 아세안 지역경제통합 - globalization	- ASEAN 공동체 - 베트남과 UN - 코친차이나-일본 관계	6
계	8	6	6	7	27

<표 4> [Nghiên cứu Đông Nam Á] 계재 논문의 주제별 분포(2009년 상반기)

구분	2009-1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계
베트남	6		5	3	5	6	25
베트남의 소수민족			1				1
해외 베트남인						1	1
동남아 각국	3	6	3	5	7	5	29
ASEAN과 국제관계	1	3	1	3	1	2	11
계	10	9	10	11	13	14	67

영어 논문의 경우 2005~2008년 4년간 게재된 27편 중에 해외 베트남인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베트남연구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17편으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한다. 국제관계나 아세안에 관한 논문 6편 모두 베트남의 대외정책과 직접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동남아 각국에 관한 연구는 4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한 편은 미얀마와 일본학자가 공동 저술한 미얀마에 관한 것이고, 다른 세 편은 역사와 민속학 연구로서 문헌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반해 2009년 상반기 6개 호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베트남어 저널의 경우, 베트남연구에 해당하는 논문과 여타 동남아 국가에 관한 연구가 거의 비슷한 수로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또는 비교민속학 분야의 논문들이 다수이다. 문제는 국제적인 학계에서 베트남어로 발표된 동남아연구의 결과를 리뷰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¹¹⁾

V. 종합 및 결론

이 연구는 베트남학자들의 연구와 설명방식을 통해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가 하나의 학술 분과로 구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한 것이었다. 그간 각국의 동남아연구 역사와 현재에 관한 평가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소위 “동남아연구 선진국”에 국한되어 왔고, 동남아 각국의 동남아 연구에 관한 평가 또한 외부의 인식과 목소리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내부의 인식과

11)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 여타 국가의 상황도 유사하다. 이러한 점이 영미권 학자가 지배적인 동남아연구 학계에서 토착학자의 연구를 충실하게 리뷰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제한한다. 서구 학자들의 논문이 동남아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영어논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 학자들의 연구는 자국 언어로 이 지역에서(locally) 출판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런 의미에서 동남아에서 진정한 ‘동남아연구자’(true ‘Southeast Asianists’)의 수는 제한적이다(Halib & Huxley 1996: 5-6).

평가에 기초하여 고찰한 것으로서 동남아인 스스로에 의한 동남아 지역체계에 관한 인식이 학문적으로 구성되어온 과정에 관한 여타의 사례연구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주로 동남아연구기관 및 연구 활동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베트남 학자들의 주장에 주목하였다. 특히 토착적인 학술적 기원을 강조하며 학제적 지역학으로서 동남아학을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 동남아연구의 구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본문의 고찰을 토대로 베트남 동남아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베트남 학자들은 동남아를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닌 하나의 지리적 실체이자, 현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 간주하고 동남아연구를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베트남 학자들은 1973년 “동남아반”이 만들어진 이후, 동남아연구는 범위의 측면에서 중국 및 인도문명과 구별되는 동남아지역 고유의 문명의 기원, 민족 및 국가의 형성과 전통문화의 출현과정, 식민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해방운동, 근대화 과정 및 동남아 각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베트남과 동남아 각국의 관계사 등 크게 다섯 범주의 연구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둘째,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의 태동 및 성장과정은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과 관련되어 왔다. 베트남 학자들은 대체로 식민주의 영향을 양면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유럽중심적 시각에 대해 강하게 부정해 왔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관념이 연구자의 철학에 깊이 내재되어 왔다. 베트남의 동남아연구는 서구학자들이 세계적인 동남아연구의 발전과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자문화중심주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한계가 뚜렷하다고 비판하면서, 베트남의 자생적인 동남아연구의 기원을 찾고자 하였다.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기관을 제도화한 학자

들은 베트남에 이미 동남아연구의 역량이 결코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동남아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강조하였다. 베트남 학자들은 특히 베트남의 동남아연구가 식민시기에 태동된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 전의 토착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셋째, 동남아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의 다수가 베트남연구 학자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동남아연구는 베트남연구를 제외하고 논의하기 힘든 정도이다. 구 소련을 포함하는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수학한 학자들 또한 대부분이 베트남연구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베트남학 연구자들이 동남아연구자로서 활동하면서 연구대상을 확장해 왔으며, 동남아의 다른 국가에 관한 연구자들도 베트남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루어 왔다. 베트남에 관한 연구를 제외할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동남아연구는 여전히 미분화, 저발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1984년 동남아연구소가 만들어지고 1990년 [동남아연구]가 창간된 이후 이 분야에 많은 제도적 발전과 학술적 진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민족학, 지리학 등 기초분야 연구자들에 의한 동남아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베트남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제도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ASEAN 가입 이후 동남아연구 조직이 강화되고, 특히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베트남-ASEAN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와 글로벌리제이션 이슈에 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다섯째, 여타의 동남아 국가에 비해 베트남은 특히 다양한 연구조직의 결성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대개의 조직은 연구중심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적인 어젠다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해 왔으며, 동남아연구와 무관한 연구자나 심지어 비연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베트남 동남아연구의 제도적인 특징은 베트남의 조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즉, 연구자를 조직화하고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고 출판, 학술대회, 국제협력 등을 활성화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의 학술적인 관심보다 조직의 전략사업과 과제를 우선시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이 연구는 베트남의 동남아 연구를 주로 제도적 측면, 즉 연구의 외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한계가 있다. 연구의 질적인 수준과 연구과정 및 결과의 학술적 특성에 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나 대상별로 주요 연구업적에 관한 구체적인 리뷰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작업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베트남, 동남아연구, 제도화, 토착화, 인식과 평가, 동남아 연구소

〈참고문헌〉

- 박사명. 2010. 「중국의 동남아학의 발전과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20(3): 1-40.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 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동남아시아연구』19(1): 215-275
- 송승원. 2010. 「미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사: 자율적 역사서술 전통의 수립과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7: 193-223.
- 신윤환. 2009.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계적 소통과 대중적 확산을 위하여」, 『동아연구』 56: 171-223.

- 유인선. 2010. 「일본에서의 동남아시아학 연구동향, 1990-2007」, 『東洋史學研究』 제110집 (2010년 3월): 335-369.
- 이상국. 2010. 「발전 속의 저발전: 싱가포르 동남아연구 발전사」, 『동남아시아연구』 20(3): 101-145.
- 최호림. 2008. 「베트남의 시민사회와 NGO: 현황과 평가」, 『민주주의와 인권』 8(2): 267-307.
- Bahrin, Tunku Shamsul. 1981. "Southeast Asian Studies in Malaysia," in Tunku Shamsul Bahrin, Chandran Jeshurun and A. Terry Rambo eds. *A Colloquium on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ISEAS. pp.100-11.
- Charnvit Kasetsiri et al. 1991. *Bibliography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ailand*. Bangkok: The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Thammasat University.
- Charnvit Kasetsiri 2003.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ailand," in Anthony Reid ed. *Southeast Asian Studies: Pacific Perspectives*. Tempe,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pp.109-17.
- Chou, Cynthia and Vincent Houben 2006. "Introduction," in Cynthia Chou and Vincent Houben eds.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SEAS. pp.1-22.
- Keyes, Charles 2003. "Vietnamese and Thai Literature as Indigenous Ethnography," in Anthony Reid ed. *Southeast Asian Studies: Pacific Perspectives*. Tempe,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pp.193-232.
- Đới Khải Lai 1992. "Tình hình Nghiên cứu Đông Nam Á của Trung Quốc gần đây"[최근 중국의 동남아연구의 경향], *Tap chí Nghiên cứu Đông Nam Á*, 1(10): 63-70.
- Emmerson, Donald K. 1984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1): 1-12.
- Halib, Mohammed & Tim Huxley eds. 1996. *An Introduction to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ISEAS, London & New York: I.B. Tauris Publishers
- Hirschman, Charles 1992. "The Sta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ies," in Charles Hirschman, Charles F. Keyes and Karl Hutterer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Balance: Reflections from America*. Ann Arbor, Michigan: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p.41-57.
- Nguyễn Đức Ninh 1983. *Tiểu thuyết Indonesia nửa đầu thế kỷ XX. [20세기 초반 인도네시아 소설]* Hà Nội: Viện Đông Nam Á.
- Nguyễn Khánh Toàn 1973(1998) "Thay Lời Nói Đầu: Về Phương Hướng và Nhiệm vụ Nghiên cứu Đông Nam Á của Chúng ta,"[서언을 대변하여: 우리 동남아연구의 방향과 임무], in Phạm Đức Dương. 1998. *25 năm Tiếp Cận Đông Nam Á Học*.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pp.6-14.
- Nguyễn Lê Thi 1993. *Thư tịch cổ Việt Nam viết về Đông Nam Á trong sách: Việt Nam-Đông Nam Á quan hệ lịch sử văn hóa. [동남아에 관한 베트남의 고서적과 베트남-동남아 역사문화 관계]* Hà Nộ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pp.57-78.
- Nguyen Quang Ngoc 2002. "A Glimpse of Vietnamese Studies: Research and Teaching in Vietnam," in Asian Center, UP. (ed) *Southeast Asian Studies in Asia: An Assessment*. Manil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p.101-108.
- Nguyễn Tấn Đắc 1991. "Quá trình nhận thức về khu vực Đông Nam Á." [동남아지역에 관한 인식과정], *Tạp chí Nghiên cứu Đông Nam Á*. số 1(2): 3-7

- Nguyễn Thị Thi suru tâm (ed.) 1977. *Thư tịch cổ Việt Nam viết về Đông Nam Á*. [동남아에 관한 베트남의 고서적] Hà Nộ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Nguyễn Từ Chi 1996. *Góp phần nghiên cứu văn hóa và tộc người*. [문화와 민족연구를 위하여] Hanoi: Nxb Văn hóa Thông tin.
- Nguyễn Từ Chi 1997. *Các dân tộc Đông Nam Á*. [동남아의 여러 민족들] Hanoi: Nxb Văn hóa dân tộc.
- Nguyễn Từ Chi (chief editor), Nguyen Duy Thieu, Bui Xuan Dinh, Nguyen Quoc Hung, Vu Huy Quang 1983. *Tim hiểu cảnh quan đồng bằng*. [평야의 경관에 대한 이해]. Hanoi: Nxb Văn hóa dân tộc.
- Nguyễn Văn Chính (1995?) “Nhật Bản và các mối quan tâm về khu vực học” [일본과 지역학에 관한 관심] (미출판 논문).
- Norlund, Irene. 2007. *Filling the Gap: The Emerging Civil Society in Viet Nam*. Hanoi: VUSTA, SNV, and UNDP.
- Phạm Đức Dương 1978, “Một số vấn đề dân tộc - ngôn ngữ ở nước ta” [각국의 민족과 언어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Tạp chí Dân tộc học* số 4: 28-33.
- Phạm Đức Dương. 1990. “Đông Nam Á Học và Tạp Chí 'Nghiên Cứu Đông Nam Á'” [동남아학과 동남아연구 저널] *Nghiên Cứu Đông Nam Á* số 1(1): 3-14.
- Phạm Đức Dương 1993. “Giao lưu văn hóa ở Đông Nam Á” [동남아의 문화교류], in *Việt Nam-Đông Nam Á, quan hệ lịch sử văn hóa*. [베트남과 동남아, 역사문화 관계] Hà Nộ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pp.5-22.
- Phạm Đức Dương 1996. “Giới thiệu một số ý kiến của A. G. Haudricpurt về việc phân loại các ngôn ngữ theo hệ tộc ở

- Đông Nam Á”[동남아 종족계통에 따른 각 언어 분류에 관한 A. G. Haudricpurt의 견해에 관한 소개], *Tạp chí Nghiên cứu Đông Nam Á*. số 1(22): 102-12.
- Phạm Đức Dương 1998a. *25 năm Tiếp Cận Đông Nam Á Học*. [동남아학의 25년 간의 접근]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 Phạm Đức Dương 1998b. *Ngôn ngữ của văn hóa Lào*. [라오스 문화의 언어] Hano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Phạm Đức Dương (chief editor), Trần Quốc Vượng, Cao Xuân Phổ eds. 1996 *Biển với người Việt cổ*. [고대 베트남인의 바다] Hanoi: Nxb van hoa thông tin.
- Phạm Đức Thành 1998, “Cùng Bạn Đọc”[독자와 함께], in Phạm Đức Dương. *25 năm Tiếp Cận Đông Nam Á Học*.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pp.3-5.
- Phan Ngọc and Phạm Đức Dương 1983 *Tiếp xúc ngôn ngữ ở Đông Nam Á*. [동남아 언어의 접촉] Hanoi.
- Reid, Anthony 2004. “Studying Southeast Asia in a Globalized World,” *Taiwan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2): 1-18.
- Reid, Anthony and Maria Serena Diokno 2003 “Completing the Circle: Southeast Asian Studies in Southeast Asia,” in Anthony Reid ed. *Southeast Asian Studies: Pacific Perspectives*. Tempe,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pp.93-107.
- Scott, James C. 1992, “Foreward,” in Charles Hirschman, Charles F. Keyes and Karl Hutterer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Balance: Reflections from America*. Ann Arbor, Michigan: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p.1-7.

- SEARAV 2006. *SEARAV và Các Tổ Chức Thành Viên [베트남동남아학회와 회원조직들]*. Hanoi: SEARAV.(Southeast Asian Research Association of Vietnam, *Trung Uong Hoi Nghien Cuu Khoa Hoc Dong Nam A-Vie tNam*)
- Trần Khánh 1991, “Giới thiệu về Viện Nghiên cứu Đông Nam Á của Singapore”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소개] *Tap chí Nghiên cứu Đông Nam Á*. số 1(2): 71-74.
- UP Asian Center et al. eds. 2003, *Southeast Asian Studies in Asia: an Assessment*. Manila: UP Asian Center.
-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출판년도 미상).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VASS: Catalogue. Nghiên cứu Đông Nam Á*. 2009-1(106); 2009-2(107); 2009-3(108), 2009-4(109), 2009-5(110), 2009-6(111).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VASS.
- Southeast Asian Studies*. 2005; 2006; 2007; 2008.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VASS.

(2010. 12. 31 투고; 2011. 1. 10 심사; 2011. 2. 18 게재확정)

<Abstract>

The Construction & Institutionaliz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Vietnam: Focusing on Insiders' Perceptions and Assessment

CHOI Horim

(HK assistant professor, SIEAS, Sogang University)

Vietnamese scholars contend that they have developed Southeast Asian studies viewing Southeast Asia as both a geographical entity with a long history and cultural tradition and a strategic region for modern development. This study has traced the construc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as an academic discipline in Vietnam through the studies and arguments of Vietnamese scholars. It has put primary focu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taking note of the assessment and perceptions of Vietnamese scholars. It also looked into the construction and limitations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Vietnam, which advocates Southeast Asian Studies as interdisciplinary area studies, with stressing of the origin of indigenous studie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include: First, a historic overview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centering on research institutions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Vietnam, Second, the

perceptions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side Vietnam and the inside evaluation of the effort to indigenize Southeast Asian studies. This study took note of Vietnamese scholars' perceptions and assessment of Southeast Asian studies performed by outsiders, primarily by Western scholars; the perceptions and evalu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conducted by Southeast Asian insiders; and the perceptions and evaluation of the origin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digenous to Vietnam. Last, it examined the construction and limitations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Vietnam, which advocates the studies as interdisciplinary regional studies.

Key Words: Southeast Asian Studies, Vietnam, Institutionalization, Perception and Assessment, Indigenization,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